

# 라벨 프린터 매출 年 12% ↑... 3% 이상 현금배당 매력적

## 株라쿨라의 종목 빅솔론

3분기 누적 매출 764억... 최대 실적 내년 키오스크 완성품 시장 진출 리서치알음, 적정주가 8300원 제시 "PER 11배 적용해도 무리 없어"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22일 '빅솔론'에 대해 "산업용 미니 프린터 전문 제조업체로 올해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며 "매년 3% 이상의 현금 배당 수익률로 배당 매력도 갖춘 기업"이라고 밝혔다.

빅솔론은 산업용 미니 프린터 제조 전문기업으로 2002년 삼성전에서 분사 후 200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폭 4인치 이하의 인쇄용지를 사용하는 미니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영업장의 영수증 발행과 산업 현장 내 재고 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빅솔론은 자체 브



랜드 'BIXOLON'을 활용해 글로벌 50여개국을 대상으로 POS용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3분기까지 (빅솔론의) 누적 매출액은 764억원으로 2020년 연간 매출액 745억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며 "각 사업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신규 라인업 개발 및 확보로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벨 프린터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물류 시장 확대에 따라 재고·자산 관리, 공장 자동화 등에 필수적이며, 음식료 프랜차이즈, 헬스케어 시장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빅솔론의 라벨 프린터 사업부 매출액은 2018·2019·2020년 각각 111억·119억·154억원으로 연평균 12%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194억을 기록해 작년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다"며 "전체 매출액 중 라벨 프린터 사업부 매출 비중은 2019년

14%에서 2021년 26%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라벨프린터 ASP(특히 산업용)가 더 높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빅솔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키오스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키오스크 시스템 내 영수증 프린터 출력 부품만 담당했던 역할을 넘어 키오스크 완성품 시장에 진입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라벨 프린터 신제품 XF 3-40을 출시해 기존 기업 간(B2B) 판매 방식에서 소규모 자영업 고객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빅솔론의 잉여현금흐름(FCF)은 ▲2018년 36억원 ▲2019년 89억원 ▲2020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만 시가총액 대비 약 60% 이상인 810억원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높으며,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600%, 10% 수준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이력이

없다.

이 연구원은 "빅솔론은 매년 3% 이상의 현금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전년 대비 높은 현금 배당이 예상된다"며 "올해 3분기 기준 가동율이 118%(2020년 82%)로 제품 수요 증가 시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유 현금 규모를 고려할 때 외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리서치알음은 빅솔론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적정주가 8300원을 제시했다. 적정주가는 2022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756원에 주가수익비율(PER) 11배를 적용해 산정했다. PER 11배는 빅솔론의 과거 5개년 평균 PER 10.4배를 고려해 산출했다. 라벨 프린터 적용처가 확대되는 점,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PER 11배 적용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현대건설 "랜드마크 넘어 라이프마크 건설"

### '랜드마크 투 라이프마크' 캠페인 진행 "젊은 세대 위한 플레이그라운드 창조"

현대건설이 랜드마크를 뛰어넘어 일상의 라이프마크를 창조하는 건설업의 무궁한 매력을 표현한 2021년 브랜드 캠페인 '랜드마크 투 라이프마크(Landmark to Lifemark)'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5번째 브랜드 캠페인이다. 현대건설은 매해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현대건설만의 도전과 열정, 창조적 혁신 정신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다.

현대건설의 국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됐다. ▲서울·경기(Play in your Passi



2021현대건설 브랜드캠페인 /현대건설

on) ▲부산·경남(Play in your Challenge) ▲전남·전북(Play in your Freedom)편으로 제작됐다.

현대건설이 건설한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개성있는 MZ세대의 모습을 담았다.

서울·경기편은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시티 라이프다. 부산·경남편에

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춤을 추는 '댄서'가 공간과 어우러지는 안무를 선보인다. 전남·전북편에서는 작업실을 떠나 디지털노마드를 실현하는 건축 디자이너가 영감을 주는 공간을 찾아 자신만의 방향성과 꿈을 설계한다.

모든 영상은 현대건설의 공식 유튜브를 비롯한 SNS채널과 현대건설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유튜브에서는 '영상에서 발견한 나만의 라이프마크'를 소개하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각 국가의 대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가 마음껏 누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공간 창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예탁결제원, 국민연금 의결권 전자투표 지원

### "기관 대상 K-VOTE 서비스 확대"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민연금공단과 서울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종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한다. API연계는 수탁은행에서 K-VOTE OPEN API를 호출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



22일 배척한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성태 국민연금공단 전략부장이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해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 NH-아문디, '골프·코스피 200' ETF 상장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이 오는 24일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 'HANARO Fn 골프테마 ETF'와 'HANARO 200 Top10 ETF'다.

'HANARO Fn 골프테마 ETF'는 에프앤가이드(FnGuide) 골프테마 지수를 추종한다. 골프인구의 증가, 골프의 대중적 인기 상승과 함께 고성장하는 골프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5년 300만명에서 2020년 4700만명으로 늘어났다.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용품 시장도 빠르게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인구에 MZ세대의 신규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향후 골프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지수 구성 상위종목(10월 29일 기

준)으로는 카카오게임즈(14%), 코오롱인더(13%), 이마트(10%), 카카오(9%), 골프존(8%) 등이다.

'HANARO 200 Top 10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코스피(KOSPI) 200 톱(Top) 10 지수를 추종한다. 코스피 200 지수 구성종목이면서 주식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10종목을 동일가중하여 구성하는 지수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우량종목 및 섹터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업종별(10월 29일 기준)로는 전기전자(31%), 운수장비(29%), 서비스업(21%), 화학(11%), 의약품(8%)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목별로는 삼성SDI, 네이버, LG화학, 기아,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다. /박미경 기자

##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이철근씨 영입

메리츠자산운용이 주식운용팀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투자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이철근(Robert Lee·사진)씨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철근씨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 인베스코(Invesco), 그리고 MFS인베스트먼트(MFS Investment)에서 15년 간 근무하며 주식 운용 및 리서치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미국과 홍콩에서 근무하며 얻은 장기투자 및 위험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전략 수립 등에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경 기자

##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 청약 경쟁률 20:1

롯데건설이 시공한 오피스텔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이 청약을 마감했다.

2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오산시 세교동 592-4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69㎡, 79㎡, 84㎡ 총 546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69㎡ 52실 ▲79㎡ 127실 ▲84㎡ 367실이다.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의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됐다. 펜트 타입이 36.8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밖에 84㎡

타입이 평균 24.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총 546실 모집에 전체 청약접수 1만932건, 평균 경쟁률 20.02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호선 세마역 초역세권에 죽미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데다 단지 주변에 형성 중인 지식산업센터 단지 등 미래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관심이 높았다"라며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관심고객등록이 약 1만여 명에 달해 성공적인 분양을 예감했으며, 고객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